



# 가정은 축복의 산실이고 내일의 출발점이다

박동규/서울대 국문과 교수

**이** 천년의 새해가 밝아온다. 누구나 새해가 오면 '올해는' 하는 희망과 포부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설날 아침이면 서로 덕담을 나누며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

그러나 꼼꼼하게 살펴보면 언제부터 인지 그냥 건성으로 가족간에 덕담만 오고갈 뿐이다.

아이들은 세뱃돈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함께 놀 궁리나 하는 즐겁게 지내는 날로 새해 아침을 맞는 일이 많아졌다.

새해는 날짜만 바뀐 다른 날일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아침이면 동쪽 하늘에 환하게 떠오르는 해는 지난 날에도 마찬가지로 있었지만 새해라는 의미를 부여하여 새롭게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게 되는 것은 마치 길을 가다가 이정표를 볼 때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인가를 살펴보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내가 초등학교 때의 일이다. 설날 그믐 밤에 자면 눈썹이 하얗게 된다고 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깊은 밤에 마당에 나가서 성거리고 있었다.

우리집 작은 마당에는 조그마한 숲을 넣어두는 광이 있었다. 그런데 캄캄한 마당 한쪽 광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마치 두런 두런 이야기하는 소리 같기도 했고 무엇인가 혼잣말로 웅얼거리는 소리 같기도 했다.

나는 무서웠지만 발소리를 죽이고 광문에 귀를 대보았다.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가만히 들어보았다. 어머니는 그 광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

우리 형제들의 이름 하나 하나를 불러가며 하는

넙게 새해에 우리 형제들이 달성해야 할 것들을 말하고 기원하는 것이었다.

나는 온 몸이 굳어졌다. 어머니가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동생들이 어떻게 커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다음날 새해 아침 어머니는 세배를 끝내고 일어서는 나를 붙잡고 다시 광에서 기원하던 나의 내일을 일러주었고 꼭 성취시킬 것을 당부했다.

나는 해마다 설날 그믐날 밤이면 어머니가 우리들의 눈에 띄지 않는 캄캄한 곳에서 혼자 간절한 목소리로 우리 형제들의 앞날을 기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그 후 조금만 게으름을 피우다가도 광속에서 애절하게 외치던 내에 대한 희망의 기원을 생각하고 나를 돌아보게 되었다.

가정의 새해는 축복의 새날인 동시에 앞날을 약속하는 기원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부모는 구체적이고 실행이 가능한 새해의 목표를 자식들에게 일일이 알려주고 일의 성공을 위해 밀어주고 자식은 이 목표를 성실히 이룰 수 있도록 마음의 다짐을 하는 날이어야 하는 것이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하는 순간 어린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있으면 느끼는 핏줄의 따뜻함은 단순히 따뜻함으로 끝나는 것이 되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어린 것이 내일을 향해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일러 주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천년은 만드는 것이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